"하산할땐 누구나 남산예찬자"

특별기획

경주남산 재조명

연재 순서

① 총 론
② 남산은 어떤 산인가
③ 남산 훼손실태
④ 남산을 가꾸는 사람들
⑤ 남산 이렇게 지키자
❻ 남산으로 떠나자

눈보다 마음으로 오르는 산 '발길마다 자긍심'

불상·탑에 깃든 정토염원…"민족혼 살아있다"

남산은 단지 등산을 목적으로 오르는 산이 아니다. 최소한의 인공으로 사람과 자연의 절묘한 어울림을 드러낸 조각솜씨. 바위에 정을 쪼아대며 기원했던 정토의 소망이 스며있는 곳. 조상들의 삶이 그러했다. 그런 조상들의 삶의 태도를 배우고자 올라야 하는 산이다.

불교인에겐 부처님을 만나는 산이다. 불교인이 아니면 어떤가. 1천년도 훨씬 넘는 시간의 공백을 단박에 메꿔주며 신라인의 영혼과 교감하는 신비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올라야 하는 산이다.

따라서 반드시 남산에 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올라야 한다. 눈으로만 봐서는 가르침이 없다. 눈요기와 등산을 원한다면 빼어난 경관을 지니지도 않은 남산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산은 얼마든지 있으니 그쪽으로 발길을 돌려야 한다.

남산에 관한 책 한권쯤을 읽고 남산흙을 밟아야 도리이다. 왜 시인들이 남산을 가리켜 "불교유적의 보고요, 민족예술이 뿌리내린 곳"이라고 했는지, "우리 모두의 어머니 같은 산"이라고 남산을 예찬했는지 물음표를 가슴 한켠에 품어야 마땅하다. 다행히 사진을 곁들인 남산 책이 여러 종 나와 나와 있다. (△경주남산(1,2)/윤경렬/대원사 △겨레의 땅 부처님 땅/윤경렬/불지사 △경주남산/김원룡 강우방 강운구/열화당 △경주남산의 탑골/윤경렬/열화당 △경주/한국문화유산답사회/돌베개 △돌부처/이근후/여시아문)

70개코스 사전지식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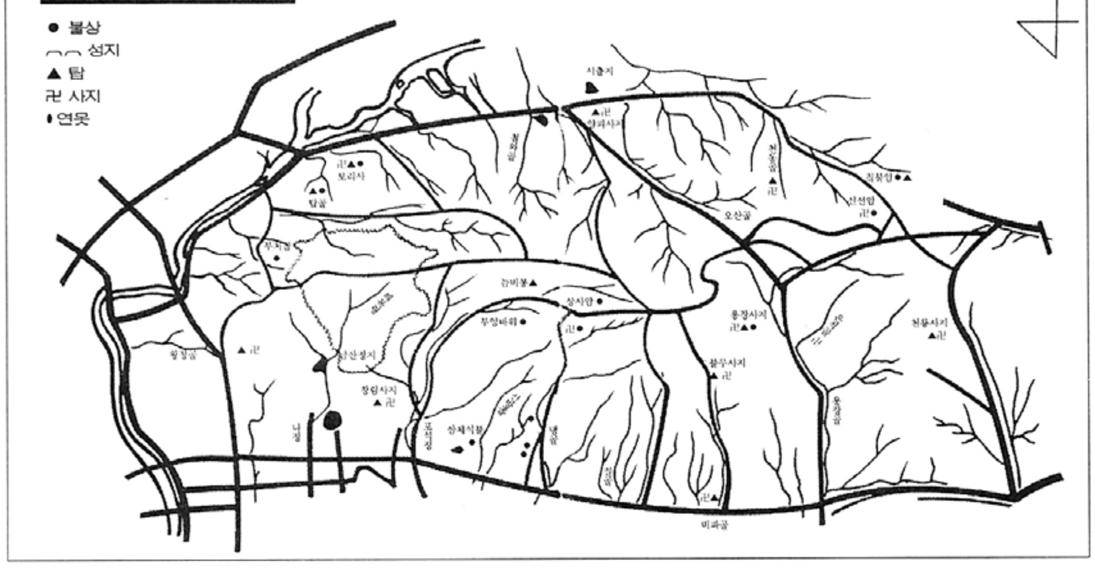
그 다음 필수품은 지도. 신라문화원에서 보급하고 있는 경주남산 실측지도가 있다. 남산의 유적목록과 순례코스 주요등산로의 실측거리를 표시해 초행자에겐 매우 요긴하다. 또 고산자의후예들에서 펴낸 남산의 모든 석불 위치를 표시한 지도 '경주남산'도 있다.

코스는 무수히 많다. 신라문화원에서는 포석정 삼릉 서출지 탑골 등 21개 지점에서 출발해 정상인 고위봉과 금오봉으로 오르는 70개의 코스와 종주코스를 소개하고 있다. 어느 곳을 출발점으로 삼던지 갔던 길을 되돌아오지 않고 여러 갈래의 길을 바꿔잡을 수 있으므로 미리 목적하는 답사지를 정해두어야 한다. 한 코스를 택하더라도 최소한 5시간은 걸릴 것으로 예상해야 한다.

남산은 남북으로 길게 거북모양의 산세를 갖추고 있으므로 대개 동쪽 또는 서쪽을 이용해 오른다.

남산 동쪽에는 절골 미륵골 국사골 등 여러 계곡이 있으며, 초입부터 절터와 불상 석탑과 마주친다. 김유신과 기녀 천관의 이야기자 전해오는 천관사터, 불곡석불좌상, 미륵골 석불좌상, 헌강왕릉, 개선사터 등이 있다.

남산 계곡과 주요 답사로



남산에서 가장 빼어난 석불을 꼽는다면 칠불암(보물 제200호)이다. 통일전 바로 옆에 자리한 서출지에서 남산 동남쪽으로 가장 깊은 골짜기인 봉화계곡을 따라 약 50분 정도 오르면 큰 바위에 7개의 석불이 새겨져 있다. 남산에서 가장 규모가 큰 석불인 칠불암 주변에는 탑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게 하는 옥개석이 흩어져 있다.

이곳에서 10분쯤 더 산행을 하면 탁 트이는 능선이 나타난다. 그 끝부분 바위산의 아슬아슬한 절벽에 감실을 파고 새겨진 감실부처님이 계신다. 미소를 머금은 얼굴이 쉽게 눈길을 거두지 못하게 만든다. 남산의 최고령 부처님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더 오르면 신선암. 멀리 불국사와 토함산이 한눈에 들어온다. 서쪽으로 산을 넘으면 남산에서 가장 큰 절터인 용장사지로 내려온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장 이근후교수(이화여대 신경정신과)는 "남산의 계곡마다 제나름 대로의 특성을 지닌 석불이 있지만 탑골의 마애조상군(보물 제201호)이란 이름의 사방불이 가장 아름답다"며 남산에서 빼놓아서는 안될 순례코스로 꼽았다.

탑골 마을 초입의 옥룡암을 지나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사방불은 높이 9m 둘레 26m의 바위에 동서남북 사방에 여래상 보살상 비천상 나한상 및 탑과 사자 등을 새겼다. 현실세계의 고통스러움을 승화시켜 고통이 없는 사방불정토의 이상향을 추구했던 당시 신라사람들의 염원이 깃들어 있다. 특히 북면 바위에 돋을새김된 탑은 황룡사 9층목탑의 원형을 추측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이다. 사방불을 지나 오른쪽 웃밭골로 방향을 잡으면 남산성과 해목령으로 이어진다. 내친 걸음에 전망대까지 올라 내려오는 길을 삼릉골로 잡을 수도 있다.

가장 유물유적이 많은 답사코스는 서쪽의 삼릉계곡. 입구의 아달라왕 신덕왕 경명왕 등 세 왕의 무덤이 한곳에 있어 삼릉계곡으로 불린다. 또다른 이름은 냉골. 한여름에도 오싹할 정도로 서늘함을 느낀다. 가장 많이 찾는 길이다. 마애관음보살상, 머리없는 석불좌상, 마애선각육존불 등의 부처님을 10분이 멀다하고 차례로 만날 수 있다. 상사암-국사골을 거쳐 동쪽골짜기로 내려올 수도 있으며, 상사바위까지 올라가 남쪽으로 방향을 돌리면 금오봉으로 이어진다.

이밖에 서쪽 코스로는 포석정을 지나 오르는 부흥골(포석골) 유느리골 가늘골과 서남쪽의 용장골 열반골 비파골로 올라가는 코스가 있다.

경주사랑모임등 '길안내'

경주사랑모임 신라문화원 등에서 길안내를 자청하므로 초행자와 단체순례 때에는 이곳에 도움을 청하면 알찬 답사를 할 수 있다. 정기적인 순례모임에 동참하는 방법도 좋다. 남산사랑모임(회장 김덕수, 0561-42-2119)에서는 매월 셋째 일요일, 신라문화원의 禪다원유적답사모임(0561-771-1950)에서는 3, 6, 9, 11월에 정기순례를 실시한다. 한국석불문화연구회(회장 이근후 02-760-5138)도 매년 한차례 정기 답사를 실시한다. 초행자들에겐 이들 단체의 답사에 동참하는 방법도 좋다.

신라문화원의 최민희씨(계림고 교사)는 일요일이면 길안내에 나선다. 남산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무분별한 등산으로부터 남산을 보호하자는 목적이 더 크다. 최씨는 남산이 오래전에 국립공원과 사적지로 지정되어 있는만큼 입산객수를 적절한 선에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산제한은 어려우므로 직접 몸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 길안내라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국립공원 훼손을 막기 위해 현지안내원의 동행없이는 입산을 허락치 않고 있는 싱가포르의 예를 자주 얘기한다.

남산을 가지 않고 경주에 갔다고 말하지 말라고 한다. 한 번 오르고서 남산에 갔다왔다고 말할 수 없는 산임도 새겨둬야 한다.

경주=정성운 기자

시론

역사교육은 '기초공사'

최근 진행되고 있는 국사 교과목의 개폐문제와 관련한 논쟁을 바라보면서 필자의 머리 속에서는 지난 '88년에 진행된 대학에서의 국책과목폐지 결정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당시 정부가 이른바 국책과목(國策科目)이라 불리우는 몇몇 교과목을 대학 교과과정에서 폐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던 것이다. 이로인해 지금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우리의 역사를 교양 필수과목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선택'될 수 없는 국사과목

지난 2월 교육개혁위원회가 발표한 교육개혁안속에 포함되어 있는 국사 교과목에 대한 개편 내용 역시 당시 상황과 논리가 같다. 학생중심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필수과목을 줄이겠다는 의도, 그리고 그러한 의도를 성취해 나가기 위해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국사를 통합사회교과에 포함시키고, 2, 3학년은 선택과목의 하나로 포함시키겠다는 개혁안은 국사과목이 지니고 있는 중요성을 외면한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것이다.

최근 한국사연구회를 비롯한 15개의 역사연구 단체는 국사를 독립 필수과목으로 편성하지 않을 경우 국사교과서의 집필을 거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국사학계는 교육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부터 계속 개혁안의 부당성을 지적해 왔으나 이에 대한 개선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자 이같은 강경책을 들고 나선 것이다. 이 문제가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수습되어 갈 것인지 아직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태지만, 나는 이 지면을 빌어 교육개혁위원들이 지니고 있는 역사관부터 따져 묻고 싶다. 중·고등학생들에게 역사 교육은 왜 필요한 것인가 하는 근원적인 부분부터, 자기 나라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선택의 개념으로 전락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들을 묻고 싶은 것이다.

교육개혁위원회와 교육부의 일부 인사들은 이같은 학계의 강경한 자세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고 있다. 이들은 '과목 이기주의' 발상이라는 표현까지 서슴지 않으며, '세계화' '국제화'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균형있는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견해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국사만을 강조하는 교육은 진정한 민족교육이 아니라 자칫 국수주의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과연 그러한가? 중·고등학생들에게 우리 민족의 역사를 가르치는 일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일이며, 지금까지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의무적으로 국사를 공부했던 우리 국민이 국수주의라는 우물 속에 갇혀 있다고 보아야 하겠는가? 이같은 발상을 하고 있는 인사들에게 그들의 역사관은 과연 무엇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와의 끊임없는 대화의 연속'이라고 강조한 한 역사학자의 표현을 빌지 않더라도 우리는 민족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우리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특히 미래를 이끌어나갈 우리의 청소년들에게 있어 역사교육은 그 어떤 과목보다 중요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우리 민족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세계화'를 추진하는 일은 결국 기초공사도 하지 않고 건물을 짓는 부실공사와 다를 바 없는 일이 될 것이다.

김 상 영
〈중앙승가대 교수〉

교육개혁위원회는 우리 민족의 장래를 책임지고 있는 기구라는 사명감을 지녀야 한다. 1년이 멀다하고 바뀌는 현행 교육제도 속에서는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한 위원회가 충분한 여론 수렴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저런 개혁안을 마구 발표하는 모습은 분명 잘못된 일이다. 국사교육을 더 강화해도 부족한 현 시점에서, 국사교육의 질을 어떻게 하면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 나온 교육개혁안의 일부내용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없는 세계화는 위험

독도는 왜 일본땅이 아니고 한국땅이어야 하는가? 이 점을 곰곰히 생각해 보면 국사과목에 대한 일부 인사들의 편견이 어느정도 사라지지 않을까 한다. 우리의 청소년들이 우리의 역사를 의무적으로 배워야만 하는 이유는 이렇게 민족의 장래를 위한 일과 사실을 직시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교육개혁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생활속의 불교 ㉜

스스로 일조권(日照權)을 포기하는 사람들

일조권(日照權)이라는 게 있다. 태양빛을 쬘 수 있는 권리를 이름이다.

가령 다른 사람이 내 집 앞에 높은 건물을 지어 햇빛을 차단하려 한다면 누구라도 법에 호소해서 햇빛 쬘 권리를 지킬 수 있다. 건축법은 일조권 보호를 위해 아예 일정한 기준을 명문화해 놓고 있다.

알렉산더 대왕이 거지 생활을 하는 철학자 디오게네스를 찾아 갔을 때의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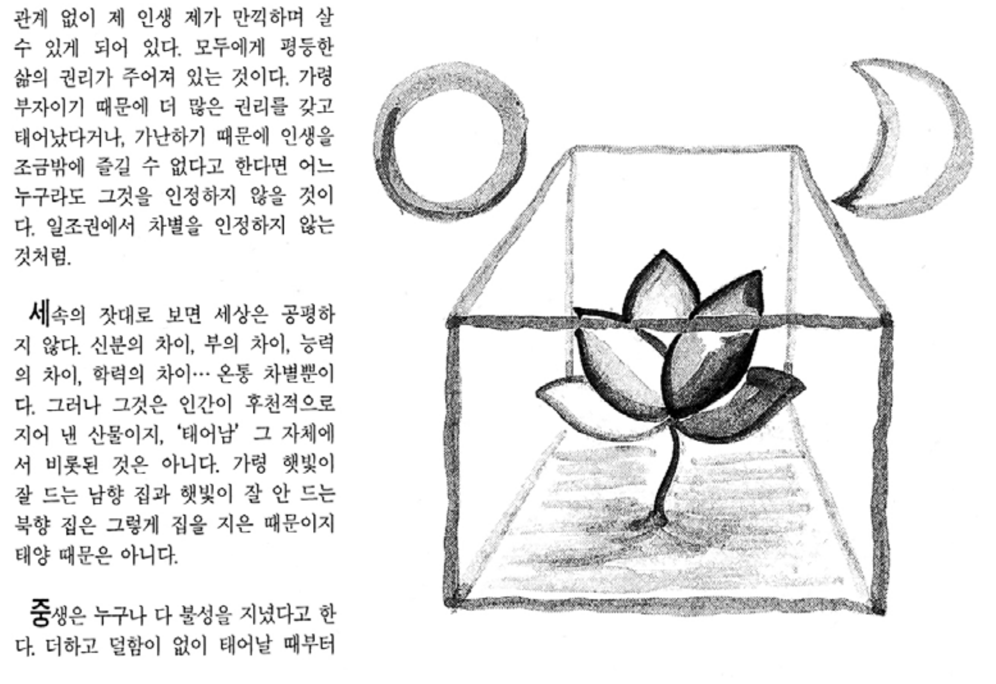
대왕이 그에게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도와 주겠다.'고 제의하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다.

"대왕이시여, 당신은 지금 햇빛을 가리고 서 있습니다. 좀 비켜 주시오."

그가 원한 것은 재물도 명예도 아니고 오직 따스한 햇볕이었다.

삶은 누구에게나 싱그럽게 열려 있다. 잘났든 못났든, 가진 게 많든 적든 관계 없이 제 인생 제가 만끽하며 살 수 있게 되어 있다. 모두에게 평등한 삶의 권리가 주어져 있는 것이다. 가령 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권리를 갖고 태어났다거나, 가난하기 때문에 인생을 조금밖에 즐길 수 없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라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조권에서 차별을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세속의 잣대로 보면 세상은 공평하지 않다. 신분의 차이, 부의 차이, 능력의 차이, 학력의 차이… 온통 차별뿐이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이 후천적으로 지어 낸 산물이지, '태어남' 그 자체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다. 가령 햇빛이 잘 드는 남향 집과 햇빛이 잘 안 드는 북향 집은 그렇게 집을 지은 때문이지 태양 때문은 아니다.



중생은 누구나 다 불성을 지녔다고 한다. 더하고 덜함이 없이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태양이 만물에 차별을 두지 않는 것처럼 신분, 능력, 부 따위의 차별은 아예 발 붙일 곳이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이면 누구나 싱그럽게 살아 갈 권리가 있고, 그 권리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 또한 지니고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그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스스로 일조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다.

내 소유, 내 생각, 내 명예, 내 가치, 내 사람, 내 자존심…에 매달리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어야만 한 세상 잘 살아 갈 수 있다고 믿어 더욱 내것, 네것에 연연한다.

이 사람들은 '내것'이라는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면 올릴수록 삶이 편안하고 행복하다고 느낀다.

벽이 높으면 햇빛이 들어오지 못한다. 벽이 높으면 시원한 솔바람을 쏘일 수 없다. 고로 그 속에 갇혀 사는 사람들의 삶은 옹졸하고 답답하고 춥기 마련이다.

그걸 아늑하고 따뜻하다 여길지 모르겠으나 밝은 태양, 시원한 솔바람에 비할 게 못 된다. 방 안에 갇혀 사는 사람이 넓은 들판의 맛을 알 수 있겠는가.

디오게네스는 대왕이 제안하는 세상의 온갖 영화 대신에 햇볕을 요구했다. 우리들도 남이 햇빛을 가리면 송사를 벌여서라도 일조권을 되찾으려 든다.

그러면서 한편 자신의 손으로 벽을 쌓아 그곳에 갇히고 싶어 한다. 참으로 어리석은 짓이다.

불법은 들판의 시원한 맛을 보여 준다. 삶을 싱그럽게 엮어 갈 길을 일러준다. 누구에게나 그 길은 열려 있다.

협찬 : 임혜경